

2001년 안전보건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김포공항에서 울산에 내려가기 위해 항공기에 올랐다. 기내 아래로는 하얀 구름이 북극의 빙하와 같았다. 울산 공항에 내리기 위해 바다로 선회할 때 밑에 장엄하고 웅장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현대중공업(최길선 사장)이다. 세계 1위 기업답게 규모 또한 엄청났다.

1995년부터 ISO 14001 규격에 따라 환경경영체제를 내실 있게 구축하여 지속적인 환경경영체제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환경개선을 하나하나 실천해오고 있고, 안전보건과도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에 "국제안전보건경영체제(OHSA 18001)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최근 노동부가 선박 건조·수립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조선업체 안전관리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최우수 사업장인 "청색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안전보건활동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올해도 6백 60억원의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 건강은 곧 회사의 건강

최근 들어 경건완장해 등 근골격계질환은 모든 사업장에 있어 골치거리이며, 현대중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근로자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의 사업본부별 총괄 중역을 위원으로 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2억원을 투자해 건강증진실을 설치, 근로자들이 근력을 강화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근골격계질환을 담당할 의사, 인간공학자,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내 병원을 무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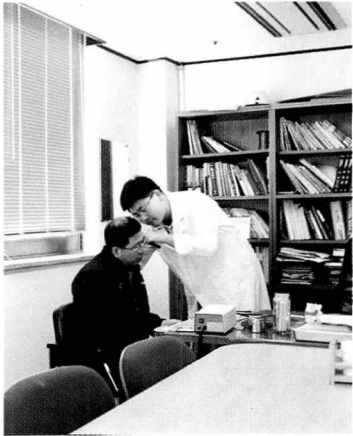


▲ OHSAS 18001 인증 획득

자율안전조직 운영에 역점

현대중공업은 자율안전조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자율안전정착을 위해



▲ 건강 진료실

당초 사장직속 독립조직에서 각 사업부문별 책임 안전관리로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개선으로 재해예방 관리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김형벽 회장의 월2회 현장시찰, 분기별 안전실천대회 개최, 월 1회의 안전점검의 날 추진 등으로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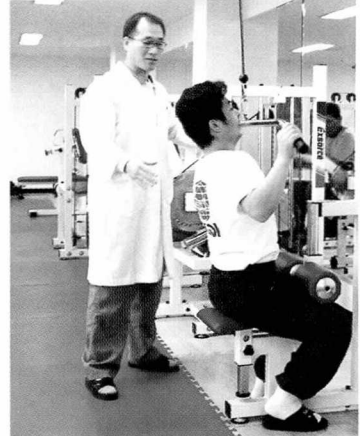
잠재위험발굴제도

작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자 스스로 발굴, 제거 개선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작업자 스스로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8월까지 36,000여건의 잠재위험을 발굴 개선하였고, 이에 대해 10,000여건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여 잠재위험발굴활동에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였다.

작업장에서 잠재위험을 발견하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신고서에 자필로 신고해도 기능하나,

전 사업장에 연결된 잠재재해관리 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의 위험요



▲ 건강 증진실

소 및 문제점을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재해예방 및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공동사안은 "사진으로 보고 익히는 안전교육"으로 전사에 공지하여 잠재위험사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지키려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이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서고 있다.

생산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던 때와 달리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안전이 생산의 축이 되어야 한다고 홍성조 상무는 강조하며, 노동부의 클린 3D사업 계획의 하나인 보건안전공동체를 협력업체와 구성해 안전보건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며, 협력업체까지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 기대해 본다. 

〈취재: 최종덕〉